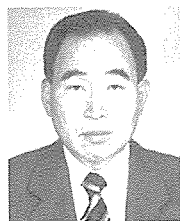


## 지적 시각장애자들의 경쟁



노 중 호

1995년 5월 어느 날이었다. 프랑스에 있는 한 정보시스템건설회사에서 임원 한 명과 컨설턴트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3개회사로부터 기술협력사업제의를 받고 내한한 것이다. 이들 일행들은 3개사를 방문하여 브리핑도 받고 현장답사도 하였다. 한국 측의 3개사는 한결같이 회사 규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이었다. 매출액이 얼마이고 직원의 수가 몇 천명이며, 프로젝트경험이 많다라는 식이었다. 브리핑과 현장답사를 마친 후에 한국회사의 관계자들과 프랑스에서 온 일행들은

---

약력 : • 75~82 쌍용그룹 경영정보실장 상무이사 • 83~89 쌍용정보통신 전무이사/대표컨설턴트  
• 85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초대회장 • 현재 (주) CHNO시스템컨설팅 마스터컨설턴트/대표이사  
한국표준협회 책임전문위원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프랑스 측의 A씨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A씨, “귀사에서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귀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B씨, “우리회사는 제조회사에서부터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회사의 솔루션입니다.”

A씨, “누가 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까?회사라는 조직이 했다는 것입니까?아니면 귀사의 직원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B씨, “물론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이지요.”

A씨,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사의 직원들이 체험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B씨, “?”

A씨, “직원의 두뇌 속에 있습니까?회사의 [지식기지]에 있습니까?”

B씨, “지식기지? . . . . .?”

A씨,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직원들이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B씨, “?”

한국측 회사의 C씨가 거들고 나섰다.

“우리회사는 ‘XY’ 라는 관리기법과 ‘XX’ 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

는데 이들을 통해 표준화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는 것이었다.

A씨, “그것들은 미국회사에서 팔고 있는 도구들이 아닙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들의 활용을 통해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높이지는 것이지 솔루션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씨와 C씨, “?”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던 프랑스측 일행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한국측 회사들이 초점을 맞춘 곳은 규모의 크기였다. 매출액이 얼마이고 직원수가 몇 천명에 이르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식의 회사 소개였다.

프랑스에서 온 손님들은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은 “쫄지어 그룹”(병영집단)이었다. 좀더 부연하면 사주의 명령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동집단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인이 물어본 [솔루션]과 [지식기지]란 무엇인가? 솔루션이란 영어의 [Solution]이다. 그리고 [지식기지]란 요즈음 지식리트계층이 개념쫄음으로 지식이란 뜻을 모를 이가 있었겠는가?

지식리트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한국 측의 직원은 왜 동문서답을 했을까?

사상이나 의미를 담는 그릇인 어휘의 표피만 보고 그릇 속에 있는 내용물도 다 안다고 착각하는 부류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시대적시각과 문화적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대화 상대방의 사상이나 말하는 뜻을 정확히 받아 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온 일행과 한국회사의 직원간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의식의 시차는 1세기이상이 된다고 하겠으며 문화적(기업문화)시각차도 있었던 것이다.

연대를 시간적 연대와 지적연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같은 세대에 살면서도 19세기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1세기의 사고 방식과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20세기에 살면서도 19세기의 지적연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입으로만 정보혁명이니 지식문화사회이니 한다고 새 천년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수는 없다. 그저 생존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제 20세기후반에 살면서 19세기의 지적연대에 머물러 있는 “나”의 존재를 확인해보자.

1764년 산업혁명이 발발하였다. 공장이 생겨나고 기업형태의 사업소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과 업무처리방식은 수공업시대의 방법과 관습 그대로였다. 수주 \_ 원자재구매 \_ 제조 \_ 배달 \_ 수금 \_ 회계 등의 일을 한 사람이 모두 수행하는 수공업시대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의 모든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수공업시대와 별차이가 나지를 않았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 즉,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14년이 되던 해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대량생산이론을 발표한 것이다. 이 이론은 기능별 전문화조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수주(판매)기능, 원자재구매(구매)기능, 제조(생산)기능, 배달(유통)기능, 회계기능별로 인력을 배치, 한 기능의 일만 전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전문화 도에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논리이다. 오늘날에는 이 이론이 경영에 있어 금과옥조로 취급되고, 기업은 물론 정부조직과 사회단체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부론은 발표된 후 헨리포드가 최초로 채택하여 성공을 견을 때까지는 외면을 당하고 모멸적인 천대를 받았었다. 이는 사람들이 산업화시대에 살면서도 수공업시대의 지적연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즉 정보혁명이 발발한지 20년이 지나 지적연대는 지식정보문명사회에 살면서도 공업화사회의 지적연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인류는 국부론의 덕분에 대량생산을 실현,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반면에 조직과 일의 부품화가 되어 인간본연의 개성을 잃고 말았다. 따라서 창조와 차별화 그리고 도전으로 승부가 나는 시대에서는 생존이 어렵게 된 것이다.

사람이 회사전체업무 중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내에서 부

서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산 속의 한 계곡에서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계곡너머의 또 다른 계곡에는 무엇이 있는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다른 기능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의식적 시각장애자가 되어버린다. 산은 산이요 회사는 회사인데 자신들의 좁은 시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사라고 생각하는 지적 시각장애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이 시대의 기업과 정부의 조직체인 것이다.